

건설동향브리핑

제495호 (2015. 1. 19)

■ 정책 · 이슈

- 규제 완화, 택지, 기금, 세제 지원 통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2015년 달라지는 주요 건설 계약 관련 제도(I)

■ 경영 · 정보

- 2014년 해외건설 수주액 660억 달러 기록

■ 경제 동향

- 2014년 11월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22.5% 감소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확보 노력할 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규제 완화, 택지, 기금, 세제 지원 통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장기적 방향성 긍정적, 단기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유연한 운영 필요 -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위해 법률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발표

- 지난 1월 13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함. 임대차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 및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
 -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개인이므로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 짧은 계약 기간, 임대 기간 중 퇴거 요구 등 다양한 주거 불안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중산층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하여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기를 기대함.
 - 이를 위해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는 최소화하고 택지, 기금, 세제 등 인센티브는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지원할 계획임.

■ 규제 완화, 택지, 기금,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직접적 수익률 개선 효과 기대

- 규제 완화 : 민간 임대주택 규제는 축소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신설해 지원함.
 - 모든 민간 임대사업자는 기금이나 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 규제만 적용받음. 나머지 규제는 배제됨.
 - 8년 이상 300호(건설임대), 또는 100호(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신설함. 기존 방식은 단기(4년) 및 장기(8년)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지원함.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이사업 신규 허가 검토, 청소, 육아, 세탁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서비스업이 가능토록 지원함.
 - 일반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장기임대를 유도하고 단기임대는 자발적 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임.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면적 제한 및 초기 임대료 규제를 폐지함.
- 택지 지원 : 택지 할인 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등 다양한 택지 지원
 - 도심 내 공공 부지 및 LH공사 보유 토지는 할부 및 할인 매각 지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비사업, 기업 보유 택지 활용시에는 건축규제 완화, 기금 심사기준 완화 등 지원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복합 건설 허용, 기부채

납 기준 완화 등 수익률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LH공사 부지를 우선 공급, 택지 공급 절차를 투명화할 계획임.
- 자금 지원 : 대출 한도 및 조건 완화, 종합금융보증제도 도입, LH공사 매입 확약 검토 등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
 - 기금 대출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며 85㎡ 초과 주택 및 4년 단기임대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리 및 상환 조건도 완화할 계획임.
 -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금융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공사 연대보증 대비 연 2%p 절감 효과 기대
 - LH공사의 매입 확약을 통해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투자금 회수 리스크 제거 검토
 - 기존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와 수급조절 리츠를 기업형 민간임대 리츠로 통합 지원
- 세제 지원 : 취득세 감면폭은 50%로 확대, 재산세도 면적별로 면제, 75% 감면 등으로 감면폭을 확대함. 소득세·법인세는 감면 대상 및 감면폭을 확대하고,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임.

■ 방향성 긍정적, 유연한 정책 운영의 모 필요

- 장기적인 방향성은 타당하나, 유연한 정책 운영을 통해 실효성 극대화 노력 필요
 - 특별법 제정 등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임.
 - 현재 임대차시장 불안의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개인 중심의 임대차시장 구조임. 기업형 임대 육성은 장기적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임.
 - 다만,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적 주거 불안에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연한 정책 운영이 필요
 - ※ 우리나라 민간 임대주택사업은 전세제도에 기인하여 낮은 수익률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동반해 나타남.
 - 100호 및 8년 이상의 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자는 제한적이며, 월세 중심의 안정적 임대 운영을 통해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지도 많지 않음.
 - 지역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한 변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지 및 사업자에 적합한 택지 지원, 세제, 자금, 규제 완화 구성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임.
 -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2015년 달라지는 주요 건설 계약 관련 제도(I)¹⁾

-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예규를 중심으로 -

■ 「국가계약법」 시행령

-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시행일 2015.3.1)
 - 명칭 : (종전) 실적공사비 → (개정) 표준시장단가
 - 산정 방식 : (종전)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기초로 결정
(개정)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기초로 시장·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정비(시행일 2015.1.1)
 - (종전)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발주자 귀책 사유, 공동 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개정) 천재지변,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 발주자 귀책 사유, 공동 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 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 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종전) 담합·뇌물·사기 등은 유효한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2인 미만) 과징금 대체 불가
(개정) 담합·뇌물·사기 등도 유효한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대체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 비용의 보상 근거 신설(시행일 2015.1.1)
 - (신설)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선정한 후 낙찰자(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로 취소된 입찰에 참여한 자
 - 보상 금액 산식 = 공사 예산의 0.1% + $\frac{\text{제안서 점수} - 60}{40} \times 0.2\%$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7조

1) 본고는 2015년 변경되는 건설 관련 주요 계약 제도를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예규를 중심으로 2회로 작성함. 본고는 1회차임.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확대(시행일 2014.11.4)
 - (중전)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 조달 계약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
 - (개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된 사항 추가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 정비(시행일 2014.11.4)
 - (중전) 「국가계약법」에서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
 - (개정) 개별법(「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명시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름.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 반영(시행일 2015.1.1)
 - (신설)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 원가에 반영
 -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시 경영 상태 평가 개선(시행일 2015.1.1)
 - (중전)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 기간)로만 평가
 - (개정) 신용등급평가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적용
 - ※ 적격심사기준 제5조

■ 기획재정부 고시

- 고시금액 변경(시행일 2015.1.1)
 -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 : 87억원 이상→82억원 이상
 -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 : 262억원 이상→245억원 이상

홍갑표(연구위원 · kphong@cerik.re.kr)

2014년 해외건설 수주액 660억 달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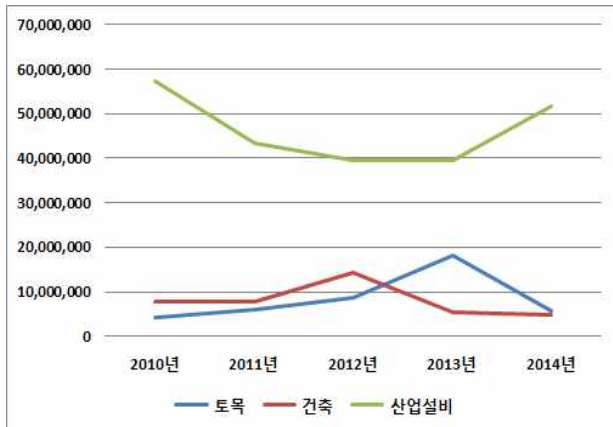
- 전년보다 1.2% 증가, 중동시장과 플랜트 공종 편중 심화 -

■ 4년 연속 정부 목표치 하회, 아시아 지역에서 전년 대비 24.1% 감소

- 2014년에 기록한 해외건설 수주액 660억 달러는 지난 2010년(716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공종별로는 플랜트 공종이 전년 수주액 396.5억 달러 대비 130% 이상 증가한 517.2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78.4%를 차지하면서 의존도가 대폭 심화됨. 반면 건축과 토목 공종의 비중은 감소함.
 - 지역별로는 중동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313.5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47.5%를 차지 하였음. 반면, 아시아는 전년 대비 42.4% 감소한 159.2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24.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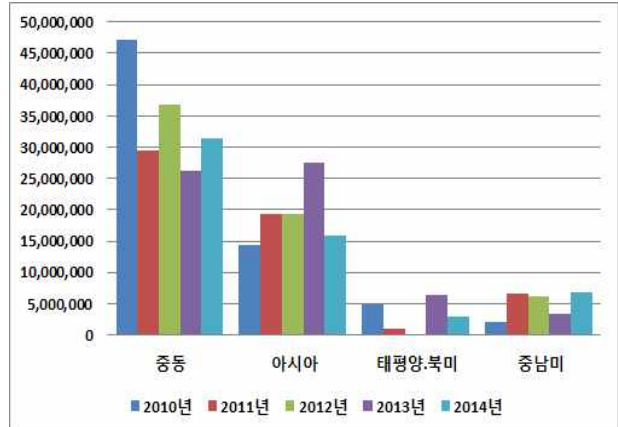
<2010~14년 주요 공종별 수주 실적>

(단위 : 천만 달러)



<2010~14년 주요 지역별 수주 실적>

(단위 : 천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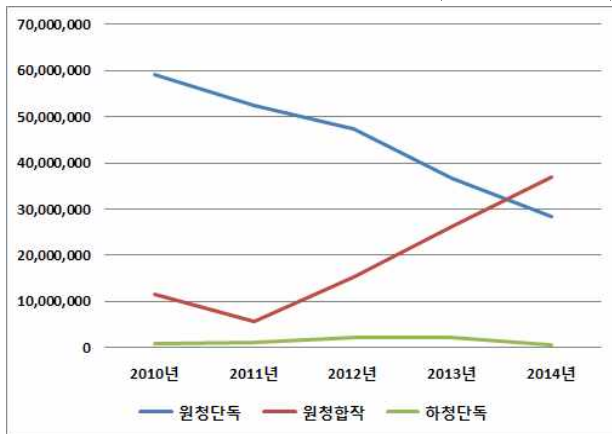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수주 형태별로는 원도급 단독 방식이 284.6억 달러를 기록해 2014년 대비 82억 달러나 감소함. 반면 원도급 합작 방식은 전년 대비 38억 달러가 증가한 370.4억 달러를 기록 하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발주 형태별로는 공개경쟁 방식이 310.2억 달러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수의시 담이 전체의 28.9%인 190.9억 달러를, 지명경쟁 방식이 전체의 23.6%인 156.8억 달러 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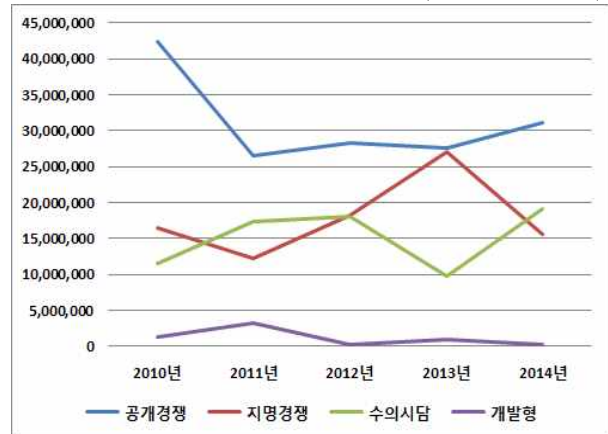
<2010~14년 수주 형태별 수주 실적>

(단위 : 천만 달러)



<2010~14년 발주 형태별 수주 실적>

(단위 : 천만 달러)



자료 : 해외건설협회

■ 중동 지역 및 플랜트 공종 의존도 심화

- 2014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동시장과 플랜트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일부 시장과 공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기형적 수주 구조의 원인임. 2013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듯 보였으나 정치 불안, 유가 급락, 내전 등 시장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기존 주력 시장과 상품에 대한 편중이 오히려 심화됨.

■ 시나리오별 유가 상황을 반영한 수주 전략 수립 필요

- 연초 목표액인 700억 달러 수주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3년 연속 650억 달러 내외의 실적을 기록해 국가 경제 선도 산업으로서의 위치는 확고히 함.
 - 하지만 최근 전년 6월 대비 50% 이상 급락한 유가로 인해 석유산업에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재정 악화로 발주를 축소 또는 지연할 경우 수주 감소가 불가피함.
 - 향후 유가의 변동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가 시나리오별로 수주 전략을 차별화해 수립하고 중동 시장 외의 신시장 개척과 건축 및 토목 등 비석유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해야 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2014년 11월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22.5% 감소

- 공공과 민간 모두 감소해 11월 실적으로 11년래 최저치 기록 -

■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부진, 7개월 연속 증가세 마감

- 2014년 11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22.5% 감소한 6조 1,225억원을 기록,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된 증가세를 마감함.
- 6조 1,225억원은 11월 실적으로는 지난 2003년 11월의 5조 8,934억원 이후 11년래 최저치로, 예년보다 대략 2조~3조원 정도 낮은 금액임.

■ 공공 부문 : 주택과 토목의 부진으로 28.8% 감소

- 공공 부문은 주택과 토목 수주가 부진해 11월 실적으로는 11년래 최저치인 1조 8,863억 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8.8% 감소함.
- 토목 수주는 도로와 철도 등 수주가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42.6% 감소한 9,152억 원을 기록함. 이로써 공공토목 수주는 2014년 9월과 10월의 증가세를 마감함.
- 주택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한 5,385억 원을 기록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한편, 비주택건축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4,325억 원으로, 2014년 10월의 3.1% 증가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함.

<2014년 11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3. 11월	7,895.2	2,648.2	1,595.8	1,052.4	672.3	380.1	5,247.0	683.6	4,563.4	2,825.6	1,737.8
2014. 11월	6,122.5	1,886.3	915.2	971.0	538.5	432.5	4,236.2	1,034.9	3,201.3	1,181.5	2,019.9
증감률	-22.5	-28.8	-42.6	-7.7	-19.9	13.8	-19.3	51.4	-29.8	-58.2	16.2
2013. 1~11월	63,264.9	18,697.3	12,028.6	6,668.8	2,839.5	3,829.2	44,567.6	8,372.7	36,194.9	21,564.2	14,630.7
2014. 1~11월	75,982.8	21,066.7	13,547.5	7,519.2	3,114.2	4,405.0	54,916.1	6,208.8	48,707.3	31,253.3	17,454.0
증감률	20.1	12.7	12.6	12.8	9.7	15.0	23.2	-25.8	34.6	44.9	19.3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 주택의 부진으로 19.3% 감소

- 민간 부문은 그동안 호조세를 보였던 주택 수주가 감소하여 11월 실적으로는 9년래 최저치인 4조 2,36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19.3% 감소함.
- 토목 수주는 발전·화학 플랜트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1.4% 증가한 1조 349억원을 기록
- 주택 수주는 신규주택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수주도 부진해 11월 실적으로는 16년래 최저치인 1조 1,815억원에 불과해 전년 동월 대비 58.2% 감소함.
- 한편, 비주택건축 수주는 오피스와 공장 수주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6.2% 증가함.

■ 건축 : 주택과 관공서 부진, 토목 :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외 대부분 부진

- 건축 공종에서는 주택과 관공서 수주가 부진
 - 사무실 및 점포와 공장 및 창고 수주는 각각 22.3%, 29.0% 증가해 양호했음.
 - 그러나, 주택 수주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모두 감소하여 11월 실적으로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1조 7,200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50.8% 감소함. 관공서 수주 또한 13.1%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토목 공종에서는 발전 및 송전, 기계설치 수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
 - 도로 및 교량과 철도 및 궤도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4%, 27.9% 감소해 부진
 - 항만 및 공항과 토지조성 수주 또한 각각 78.7%, 11.2% 감소
 - 한편, 발전 및 송전 수주는 복합화력 발전소 수주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6.2% 증가한 4,659억원을 기록해 11월 실적으로는 4년래 최대치 기록
 - 기계설치 수주도 석유화학 및 가스 플랜트 수주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9% 증가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 대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4. 11월	1,720.0	1,137.1	809.3	435.8	70.3	192.2	472.9	65.1	263.3	465.9	323.1
증감률	-50.8	22.3	29.0	-13.1	18.7	-0.4	-27.9	-78.7	-11.2	56.2	60.9
2014.1~11월	34,367.5	11,496.6	4,744.0	3,926.0	1,692.5	4,730.6	3,705.8	1,076.0	2,440.0	2,756.3	2,578.6
증감률	40.8	46.5	13.9	-27.3	60.8	64.3	25.5	-16.6	17.2	-24.5	-45.8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 9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심사'에 기획조정실 박용석 실장 참여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
1. 12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정책팀 주최,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민간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대책 논의
1. 1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건설산업 전망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주제 발표자로 참여 - 주제 :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적정임금 지급 관련
1. 15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년교례회'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 신년 특강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정책과 주최, 'CM 제도개선 TF'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실장 참여 - 개도 개선 사항 논의
1. 16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경제과 주최, '통계 자문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흥일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 2015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 토론회 개최

- 연구원은 1월 22일(목) 9층 연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부서별 업무 계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이번 토론회는 연구 및 사업·행정부서가 참여하여 2015년도 부서별 연구 및 사업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각 부서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서울대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ACPMP) 12기 모집

- 교육 기간 : 2015. 3. 25.(수)~12. 1(화)
- 교육 시간 : 주 1회, 매주 화요일 오후 5시~9시 30분
(특강 및 실무 강의, 토론 및 공동 연구, 정보 교환)
- 원서 교부 및 모집 기간 : 2015년 1월 13일(화)~2월 13일(금)
- 합격자 발표 : 2015년 3월 3일(화)
- 입학식 : 2015년 3월 25일(수)
- 문의 : 서울대 ACPMP 사무국(Tel.02-882-26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업지원팀(Tel.02-3441-0806)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확보 노력할 때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595억 달러에 이르는 수주를 달성해 수출 주력산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수주 누계로는 2015년 중반이면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국내 건설시장의 부진에 따라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국내 건설기업들의 진출확대 노력과 높은 기술력, 그리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해외건설의 성과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연간 6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주 실적의 대부분을 중동과 플랜트 공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 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인해 중동과 플랜트 비중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시장 다변화와 공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 듯싶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또한 연간 전체 수주의 60% 이상을 국내 상위 10대 건설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 건설기업의 수주는 최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공종과 시장에 집중된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전체 수주 규모가 결정되는 문제는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두 번째, 최근 급락하는 국제 유가 등 불안정한 세계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부재는 수주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주력시장인 중동 국가들은 배럴당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급락하면서 당장 재정적자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석유산업 기반의 중동 국가들에 유가 하락은 투자 감소를 유인하고 이는 곧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다.

끝으로 지난해 몇몇 건설사가 대규모 적자를 발표하면서 불거진 무리한 저가 수주와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논란은 최근 기업 간 공동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하다.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버렸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근원적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 해외건설의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은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올해만 혹은 내년만 하고 끝낼 시장이 아니기에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2014. 12. 18>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